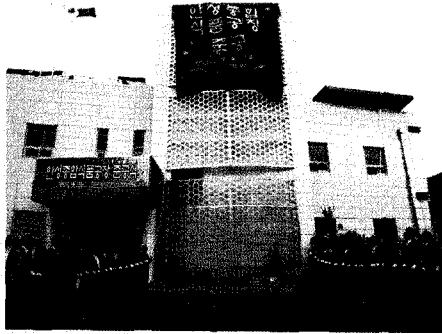


## ‘안성종합식품공장’ 준공식 열려

— 한국양봉농협, 4월 14일 경기도 안성에서 개최



한국양봉농협은 지난 4월 14일 국내 최초로 HACCP와 GMP 시설을 갖춘 ‘안성종합

식품공장’ (이하 안성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양봉농협이 총 12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기 안성시 미양면 계곡리에 준공한 안성공장은 국내 벌꿀을 비롯해 관련 가공식품을 유

통·공급하는 역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이 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제품은 천연벌꿀, 프로폴리스, 로얄제리, 화분, 봉독 등 1차 가공품과 과즙, 한약재 등과 결합한 2차 가공식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안성공장은 생산공장, 원자재 저장실, 화분떡 공장 등이 있는 공장동과 전시실, 강당, 사무실, 연구·검사실 등으로 구성된 사무동 등 총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생시설을 앞세워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 제품을 판매할 방침이다.

## 축단협, 농협 개혁에 단호히 대처기로 결의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는 올 한해 축산 현안 해

결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전면 부정하는 농협 개혁에 단호히 대처기로 결의했다. 축단협은 지난 3월 18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2009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축단협은 이날 축산단체의 의견 결집을 위한

활동과 축산업의 안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개발, 축단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자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농협 맥킨지 보고서와 관련, 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축단협 차원에서 강력 대응키로 하고, 맥킨지 보고서를 폐기하고 진정한 농협개혁 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축단협은 이와 더불어 2008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축산물 HACCP기준원 가입 승인에 대해서는 관련 회칙 개정을 검토한 이후 재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회계연도 변경을 골자로 한 회칙 개정안도 의결됐다. ■